

# 허석 순천시장, 1박2일 '별밤토크'

### 상평마을회관서 숙박하며 밤새 주민들과 소통 명예 황전면민가수 설운도 '특별한 손님' 참석

허석 순천시장은 최근 황전면 상평마을을 찾아 광역 상수도 기반 시설 마련 등 황전면과 월등면의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 주민과 소통하는 1박 2일 '별밤토크' 시간을 가졌다.

업무 일정을 마치고 상평마을을 찾은 허석 시장은 주민 30여명과 저녁을 함께하며, 코로나19 사태 속에 주민들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별밤토크는 황전·월등지역의 광역상수도 시설 조기 설치, 마을 위험시설물 정비 등 마을과 지역 현안들에서부터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밤 9시가 넘도록 계속되었다.

참석한 주민들이 마을회관 주방 시설과 마을 진입로 도색이 가장 시급한 마을 현안이라고 건의하자 일주일 안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허석시장의 대담에 박수를 보내기도 하는 등 정담을 이어갔다.

둘째 날은 상평마을 뒤편에 자리한 편백나무 숲과 전국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매실의 대체 과수인 플럼코트 농가를 둘러보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가공 산업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평마을 유병철 이장은 바쁜 일정에도 마을을 직접 찾아준 허석 시장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면서 "오늘의 자리를 우리 마을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석 시장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니 주민들의 삶이 체감 된다"며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여 마음에 와 닿는 시정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허석시장과 주민들

이날 별밤토크에는 특별한 손님도 참석했다. 명예 황전면민으로 2년째 인연을 맺고 있는 가수 설운도가 참석해 상평마을 지역살이 신고식을 치러 허석 시장과 주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가수 설운도씨는 앞으로 상평마을에 조그마한 주택을 마련해 자주 드나들면서 작가들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민선 7기 들어서 처음 시도된 별밤토크는 오지·소외마을을

찾아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외서면 대전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반영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마을, 골목 구석구석 현장대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무료' 세무 대리인 선임해드려요”

### 보성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보성군은 영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 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법률 검토,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대리인 선정 지원 대상은 청구액이 1천만 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다. 단,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속 채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및 지방세 이의신청 시 재무과(061-850-5154)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며, 요건에 맞는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들의 권의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 광양시 섬진강재첩 정보화마을

### '명품' 미니수박 2종 판매 개시

#### 1인가구·소비취향에 맞춘 복수박·블랙수박 인기

광양시는 6월 중순부터 섬진강재첩 정보화마을에서 미니수박 2종을 판매 개시했다.

2016년부터 광양지역에서 생산된 미니수박은 수도권과 광주 대형마트 등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1인 가구와 소가족화 소비 취향에 맞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니수박은 섬진강의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질의 좋은 환경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우수 농가 재배 기술을 통해 생산돼 당도(12Brix 이상)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며, 비타민A와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뇨작용과 피로회복, 무기질에 효과적이다.

판매되고 있는 수박 종류는 복수박(각아먹는 수박)과 블랙수박(미니 흑피수박) 두 가지이다. 복수박은 럭비공 모양에 표피가 선명하고 껍질이 연해 깎아 먹거나 수박화채, 수박쥬스를 만들어 먹기에 편리하며, 박스당(3.5~4kg) 14,900원이다.

블랙수박은 껍질이 얇고 단단해 이동성이 뛰어나고 진한 단맛과 속살이 풍부하며, 박스당(5~6kg)



18,900원이다.

미니수박은 광양 섬진강재첩 정보화마을(<http://sw.invil.org>) 홈페이지와 제휴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지난 15일 KBS 6시 내고향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서무열 섬진강재첩정보화마을 위원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기술로 재배된 명품 미니수박을 많이 드시고 이른 무더위에 지친 마음을 달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주옥 정보통신과장은 "마을 주민이 직접 생산한 미니수박을 전국에 알려 농가소득에 기여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여수시 중앙동 COP28 유치 서명운동 추진

여수시 중앙동 6개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당위성 홍보와 서명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중앙동 6개 자생단체 회원들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이신신 광장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당위성 홍보와 서명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COP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매년 개최하는 회의로 제28차 총회는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권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26차 회의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면서 예상 개최 시기는 2023년 11월쯤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 광양시, 인구활력 증진위원회 본격 활동 시동

### 주요 추진시책 점검 등 인구위기 적극 대응



광양시는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활력 증진위원회'를 개설했다.

인구활력 증진위원회는 광양시장을 위원장으로 시, 경제계, 학계, 마을공동체 리더, 귀농귀촌인, 청년·시민사회단체, 기업체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인구 영향분석,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등 인구정책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한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광양시장을 위원장으로 시, 경제계, 학계, 마을공동체 리더, 귀농귀촌인, 청년·시민사회단체, 기업체 등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시는 인구절벽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개 분야 54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2020 광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참석 위원들은 지역 특성과 시민의 행적 수요를 반영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시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인구감소 위기는 시정 모든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충격이 인구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민·관 위원회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